김진무의 중국불교의 고승들 ⑭ 당(唐) 호법사문(護法沙門) 법림(法琳)

▶ 한줄 요약
중국불교의 역사에서 불법의 혜명이 단절될 상황에서 반드시 목숨 건 대존숙이 출현하여 겨우 그 명맥을 유지하게 하고, 그에 힘입어 불법이 다시 흥성함을 볼 수 있는데, 당 초기의 법림이 그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유·도 도전 '폐불' 위기에 목숨 건 호법

남북으로 분열된 남북조를 통일시키고 불교를 중심으로 나라를 통치하고자 했던 수대(隋代)는 무리한 고구려 침공에 따른 후유증과 황실의 혼란으로 단명하고, 뒤를 이어 문제(文帝)의 충신이었던 이연(李淵)이 당(唐, 618~907)을 세우게 되었다. 당이 건립되면서 남북조 이래 중국사상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여왔던 불교는 다시 유도교 양교의 치열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황가(皇家)의 성인 이씨(李氏)의 조상이 노자(老子, 李老聃)라는 인식과 고조 이연의 모친이 두(竇)씨로서 서한(西漢) 시기 황로학(黃老學)의 절대적 지지자였던 두태후(竇太后)의 후예를 자칭한 까닭에 황실에서는 도교를 지지하였다. 그에 따라 도교의 인물들이 주요 관직에 대거 참여하였다.

이렇게 도교가 권세를 얻자 불교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였다. 당의 건립 초기인 무덕(武德) 4년(621), 당시 태사령으로 있던 도사 부혁(傅奕)은 위진, 남북조 시기의 반불교적 인물들을 모아 〈고식전(高識傳)〉을 편집하여 이를 근거로 고조에게 몇 차례에 걸쳐 "불교를 폐하라"라는 내용의 상소를 올리면서 이른바 '불도지쟁(佛道之爭)'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 '불도지쟁'은 태종(太宗, 재위 626~649), 고종(高宗, 재위 649~683)의 3대에 이르기까지 끝나지 않는 기나긴 논쟁으로 진행되었지만, 초기의 논쟁은 법림(法琳, 572~640)과 그의 속가 제자인 이사정(李師政)에 의하여 어느 정도 진정되었다. 그에 따라 당시 자칫하면 극단적인 '폐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불법을 지켜낸 법림에 대하여 그 생애와 사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법림의 전기는 〈속고승전〉 권24에 실려 있으며, 또한 〈광홍명집(廣弘明集)〉 등에 다양하게 언급되어 있지만, 언종(彦琮)이 찬술한 〈당호법사문법림별전(唐護法沙門法琳別傳)〉 3권(大正藏50 所收)에 그의 생애와 호법의 과정들을 상당히 상세하게 논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속성이 진(陳)씨이며, 남조(南朝) 진(陳)의 태건(太建) 4년(572)에 영천(潁川, 현 河南省 禹州市)에서 태어났으며, 어려서 출가하였다. 출가한 이후 유학과 불교의 학문을 두루 익혔으며, 금릉(金陵, 현 南京) 등지를 유력하면서 도를 물었다고 한다. 수(隋) 개황(開皇) 14년, 23세에 청계산(青溪山) 귀곡동(鬼谷洞, 현 湖北省 遠安縣)에 7년간 은거하면서 낮에는 불경을 밤에는 속전(俗典)을 열람하였는데, 이 시기에 〈청계산기(青溪山記)〉를 찬술하였으며, 커다란 학문적 성취를 이루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인수(仁壽) 원년(594)에 귀곡동에서 나와 장안(長安, 현 西安) 지역을 유람하였으며, 의녕(義寧) 원년(617)에 도교의 실상을 알고자 황건(黃巾) 도복(道服)을 입고 도사들과 교류하다가 당(唐) 무덕(武德) 원년(618)에 다시 불교로 돌아와 장안의 제법사(濟法寺)에 주석하였다. 이 시기에 법림을 따르는 수많은 승속의 무리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태자 이건성(李建成)을 가리키던 동궁학사(東宮學士) 이사정이 재가 제자가 되었다.

무덕 4년(621) 태사령 부혁(傅奕)은 황제에게 11조의 항목을 들어 "불경은 허망한 말만 하고 요사스러운 일만 꾸며 나라에 손해를 끼치고 가정을 파괴할 뿐, 세상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바라건대, 오랑캐인 부처[胡佛]의 사교(邪敎)를 다시 천축(天竺)으로 돌아가게 하고, 뭇 사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한다면, 곧 가정과 나라는 크게 번창할 것이며 노자와 공자의 가르침이 행하여지게 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상소를 올렸다. 이에 고조 이연은 승려들의 의견을 듣고자 소집하였는데, 특히 법림이 논리정연하게 고조의 물음에 답변하여 부혁의 상소는 실행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부혁은 지속적으로 상소를 올리고, 또한 그 상소문을 널리 유포하자 법림은 〈파사론(破邪論)〉 2권(大正藏52 所收)을 찬술하였고, 이를 이사정이 태자 이건성을 통하여 고조에게 상주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사정도 또한 〈내덕론(內德論)〉(〈廣弘明集〉卷15 所收)과 〈정사론(正邪論)〉을 찬술하여 반박하였다.

법림은 지속적으로 도교에서 불교를 폐하자는 주장이 나타나자 무덕 5년(622) 정월에 황태자에게 상소를 올렸고, 무덕 6년(623) 5월 당시 진왕(秦王)이었던 이세민(李世民)에게 상소를 올리자 부혁의 상소와 관련된 논의는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무덕 9년(626) 3월 고조는 경사(京師)인 장안(長安)에 다만 3개 사찰에 1천 명의 승려만 남기고, 나머지 사찰은 모두 왕공(王公)들에게 나누어주라고 조서를 내리지만, 6월 3일에 고조가 퇴위(退位)하고 이세민이 태종(太宗)에 즉위하여 대사면(大赦免)을 내리면서 이 조칙은 무효가 되어 다시 사찰들을 회복하게 되었다. 〈속고승전〉에서는 이러한 대사면이 바로 법림의 공로라고 찬탄하고 있다.

도교 '불도지쟁' 초기 진정시켜
태종 대사면 사찰 회복 큰 공로
익주 사찰로 가던 길 69세 입적



지속적인 도교의 '폐불' 주장이 일자 법림은 진왕(秦王)이었던 이세민(李世民)에게 상소를 올려 일단락됐다. 사진은 당태종 이세민 초상화. 출처=중국역대인물 초상화

이 시기에 법림은 도사 이중경(李仲卿)과 유진희(劉進喜) 등이 찬술한 〈십이구미론(十異九迷論)〉과 〈현정론(顯正論)〉 등을 찬술하여 불교를 폄하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변정론(辨正論)〉 8권 12편(大正藏52 所收)을 찬술하였고, 당시 뛰어난 학자로 평판이 높았던 동궁서자(東宮庶子) 우세남(虞世南)이 그 서문을 찬술하였다.

정관(貞觀) 원년에 태종은 고조를 위하여 남산의 대화궁(大和宮)을 용전사(龍田寺)로 개조하여 법림을 주지로 임명하였고, 또한 3년(629)에 바라파가라밀다라(波羅頗迦羅蜜多羅) 삼장이 장안에 도착하여 〈보성다라니경(寶星陀羅尼經)〉과 〈반야등론(般若燈論)〉 등의 경전을 번역하자 법림은 필수(筆受)를 맡았으며, 〈보성다라니경〉에 서문을 찬술하였다.(大正藏13 所收)

그러나 정관 11년(637) 정월에 태종이 도교의 여관(女官)의 위계를 불교의 비구니보다 앞에 두자 법림을 대표로 하여 반박하였으나 태종은 듣지 않았다. 이로부터 태종의 미움을 사자 13년(639) 9월 도사 진세영(秦世英)이 법림이 찬술한 〈변정론〉이 황실을 비방한 것이며, 그 죄는 황제를 속인 죄라고 음해하였다. 이에 황제는 화가 치밀어 칙명을 내려 승려들의 승적(僧籍)을 몰수하고 환속시키고, 법림을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었다.

이후 10월부터 형부상서 유덕위(劉德威) 등이 계속 추궁하였지만, 법림이 굽히지 않자 11월 15일 태종이 직접 심문하였는데, 당시 문답이 200여 차례가 있었다고 한다. 20일에 태종은 명령을 내려 7일간 관세음보살을 염송하여 신령한 감응이 나타나는가를 지켜보라고 하였다. 7일 후에 법림은 어떠한 감응도 없지만, 〈변정론〉에 한 구절이라도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형벌을 기꺼이 받겠다는 답변을 하였고, 태종은 이에 만족하여 법림의 죄를 묻지 않기로 하고, 풀어주었다. 이에 법림은 〈도굴원편(悼屈原篇)〉을 찬술하여 자신의 심정을 밝혔다.

감옥에서 풀려난 후 법림은 칙명에 따라 익주(益州, 현 四川 일대)의 사찰로 가던 중에 백뢰관(百牢關) 보리사(菩提寺)에 이르러 병환이 중해지자 법림은 "대장부의 물거품 같고 허깨비 같은 이 몸이, 진실로 아무 데도 쓸모없게 되었구나. 이렇게 추악함이 드러난 것을 보니, 매우 싫어할 만하구나! 본래 도(道)를 구함으로써 입신(立身)하리라 기약했는데, 뜻대로 되지 못하였도다. 기린을 위해 울고 봉황을 위해 슬퍼하니, 슬픈 마음이 없을 수 있겠는가?"라는 말을 마치고 입적하였다. 이때가 정관 14년(640) 가을 7월 23일, 법사의 춘추(春秋) 69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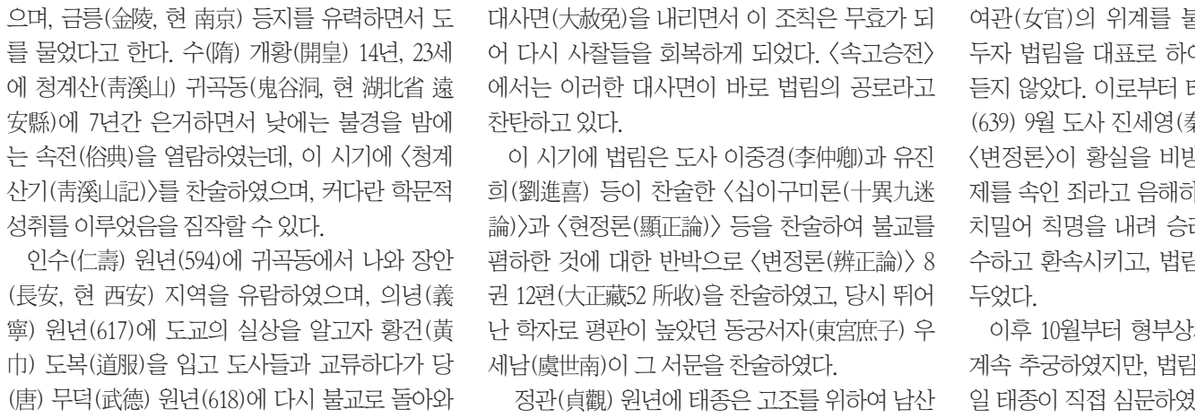
〈속고승전〉의 전기에는 법림의 저술이 "시(詩)·부(賦)·계(啓)·송(頌)비(碑)·표(表)·장(章)·뢰(誄)·대승교법(大乘敎法)과 여러 가지 논(論)·기(記)·전(傳) 등을 합하면 30여 권"이라고 하고, "모두 금석(金石)과 같은 문장이라고 그의 풍운(風韻)을 격찬하였고, 수놓은 아름다운 비단과 같은 문사(文思)라고 찬미하였다"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파사론〉 2권과 〈현정론〉 8권, 그리고 〈광홍명집〉에 실려 있는 〈폐성불승잠(廢省佛僧箴)〉 〈사론(邪論)〉 〈당사문석혜정절의론(唐沙門釋惠淨折疑論)〉만이 현존하고, 대부분이 산실되었다. 그러나 〈당호법사문법림별전〉 3권에는 중요한 문구들이 많이 인용되어 대체로 법림의 사상을 엿볼 수 있다. 그 가운데 〈파사론〉은 부혁이 제시한 11조목 가운데 9개 항목에 대하여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 〈변정론〉은 12편으로 나누어 불교와 유·도의 차별을 논술하여 궁극적으로 불교가 뛰어난 가르침임을 논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책에서 중국에 불교의 전래로부터 불교를 옹호한 군주와 재상, 그리고 북주 무제의 '폐불' 등을 논하고 있고, 또한 사경(寫經) 등의 구체적인 신앙의 사례까지도 언급하고 있어서 중국불교의 다양한 측면을 고찰할 수 있는 중요한 문헌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간략한 법림의 생애로부터 '폐불'의 위기에 목숨을 건 호법의 과정을 엿볼 수 있어 많은 상념이 인다. 중국불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불법의 혜명이 단절될 상황에서 반드시 목숨을 건 대존숙이 출현하여 겨우 그 명맥을 유지하게 하고, 그에 힘입어 불법이 다시 흥성함을 볼 수 있는데, 당 초기의 법림이 그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당호법사문법림별전〉에는 법림이 감옥에서 풀려나오니, 주변의 승려들이 수행이나 하지 무엇 때문에 〈파사론〉이나 〈변정론〉 같은 책을 쓰고, 쓸데없이 황제를 화나게 하여 시끄럽게 하는가 하는 비판을 하자 법림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라고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익주로 떠나면서 "뜻하지 않게 잘못 죄를 쓰고서, 친구도 여의고 또 어버이까지 여의네. 산천(山川)이 만 리를 가로막고 있으니, 이제 7척의 몸이 고달프기만 하네. 혼(魂)은 멀리 초(楚)나라로 가겠지만, 마음만은 나뉘어 홀로 진(秦)나라에 머무네. 스스로 서로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사별(死別)하는 사람을 가엾어 하리"라는 시를 남겼다고 한다.

이로부터 법림이 품은 회포를 느낄 수 있어 더욱 감회가 새롭다. 실제로 당 초기에 법림의 목숨 건 호법이 아니었다면 과연 화려하게 피어났던 당대의 불교가 가능했을까? 물론 법림의 호법으로 '불도지쟁'이 종결된 것은 아니지만, 모든 변역(變易)은 그 초기화가 전체 흐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결코 그 의미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前 동국대 불교문화원 부교수〉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가정집

A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Q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 서울·경기 02-456-8831 · 충 청 도 010-6545-3350 · 전 라 도 011-248-6298
· 강 원 도 019-396-1110 · 경 상 도 010-4187-006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

사단법인 국제불교 승가회
대광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종 정 보승 덕산
총무원장 성원 도현

원로원장 원성 감사원장 원 종 국제포교원장 정 암
중앙종회의장 서 암 법사회장 금강심 사 정 원 장 보 운
교육원장 도 엽 원로부의장 지 현 비구니부회장 화 심

사업부 소속
부장 손연호 (도림 처사) (불단 닫집 법상 제작.등)
부장 노정환 (일연 처사) (불상 단청 탱화 제작.등)

전국 지부
부산교구지현스님 전남교구보운스님 충북교구무광스님
충남교구삼현스님 경기교구일연 경남교구도엽스님

전국 사·암 주지 및 사부대중
혜정스님 정수법사 해선법사

동양심리상담사 1급,2급 자격증반 운영 반지정사 창원 055-265-0408

총본산-회룡사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가천안길 44-66
010-4001-8476

총무원-용주사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초하로 634-19
055-391-0413